액세스 디나이드(Access Denied): D.C. 언어접근법의 약속 불이행

조사결과의 요약 및 권고

2004 년의 D.C. 언어접근법(Language Access Act)은 영어 미숙 (LEP) 및 비 영어권(NEP) 개인들의 정부 서비스,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계획되어있다. 동 법률은 대부분의 도시 행정기관들에게 모든 영어 외 언어에 대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것과 중요한 문서들을 상당수의 개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들로 번역하도록 요구한다. 동 법률은 대민 접촉이 현저한 행정기관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을 부과하고 있다. 동 법률의 준수는 D.C. 인권국(OHR)의 감독을 받는다.

액세스 디나이드(Access Denied) 는 워싱턴 디씨(D.C.)에서 언어접근권의 현황을 판단하기 위해 무수한 개인들이 수행하는 주요 사업을 대표한다. 아메리카대학교 워싱턴 법과대학의 이민자사법클리닉(Immigrant Justice Clinic)과 D.C. 언어접근연대(LAC)는 도시 행정기관들과 접촉했던 258 명의 LEP/NEP 개인들에게 설문조사를 수행하고, 직접, 온라인 및 전화를 통해서도 행정기관들을 조사했다. 지역사회 설문조사 및 다른 조사들에서 많은 언어들이 나타났지만 보고서의 데이터는 OHR 이 가장 널리 사용된다고 간주하는 다음 6 개 언어에 초점을 맞춘다: 암하라어, 중국어, 불어,한국어, 스페인어, 베트남어

데이터 수집을 통해, 동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도출했다:

•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58%는 D.C. 행정기관과의 접촉에서 어떤

언어들에 대한 접근은 어렵다고 답했다. 다수의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한 언어접근 관련 문제점들이 나타났다.

• 어떤 언어들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을 지적한 사람들 가운데 74%는 통역 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경험했다.

• 어떤 언어들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을 지적한 사람들 가운데 30%는 문서의 부재를 지적했고, 31%는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게시판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.

• 행정기관 웹사이트에 대한 시험결과, 70%가 번역된 문서의 이용 불가능함을 나타났다.

• 행정기관들의 경우, 서비스 대상 주민들의 언어 필요를 기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에 일관성이 부재한다. 그러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정기관들의 정보 가운데 많은 것들이 흔히 불완전하거나 확실하지 않다.

이러한 결과를 통해 행정기관들이 위 법률의 요구사항들을 준수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이 보고서는 그들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:

• 행정기관들은 지역사회의 언어 필요를 판단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한

방법들을 실행해야 한다.

• 직원 훈련을 개선함으로써 그들이 위 법률의 요구사항들을 숙지하도록 한다.

• 스페인어 이외의 언어들에서 언어접근 서비스를 개선한다.

•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행정기관과 접속하는 개인들을 위해 별도의 통역 서비스를 추가한다.

• 각 행정기관마다 일정한 수를 충족하는 중요한 문서의 번역을 확보한다.

• OHR 은 자체 준수를 포함하여 행정기관들의 준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, 불편 신고 과정이 더 투명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도록

해야 한다.